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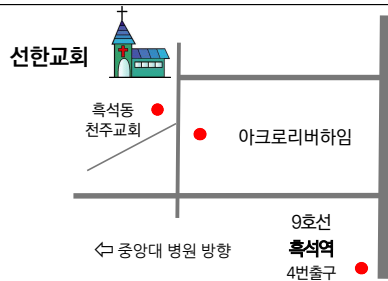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3

기 독 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79장 (통일찬송가 40장)	
교 독 문	교독문 20 (시편 33편)	
찬 양 과 경 배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	
대 표 기 도	박영근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5장 3 ~ 9절	
설 교	화평하게 하는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교회안의 분쟁해결 (롬14:13-23)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일독한 사람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6. 성경암송(20구절): 개인별로 시험본 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화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 김요한·임주형 결혼예배	일시: 6월 20일 토요일 12시 장소: 베라카 채플웨딩(CTS 기독교 TV 2층) ※ 교회에서 11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되게 하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

가정예배

주님께 맡긴 삶

찬송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통 456)

본문 :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 만족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면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과나무 묘목을 심은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주님, 거름이 필요해요.” 며칠이 지난 후 그 농부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약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비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소나기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부드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농부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과나무에는 뜨거운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을 비춰주세요. 주님, 간구합니다.” 그러자 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빛이 미끄러지듯 내비쳤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든든히 서려면 바람으로 적당히 흔들어 주셔야 해요.” 그러자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과나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상심한 농부는 이웃집 농부를 찾아가 이 신기한 경험을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농부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지. 그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네. 나는 이 사과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은 이걸 창조하신 분이시니 나 같은 인간보다 필요를 더 잘 아시니까 말이네.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 방법도 수단도 정해드리지 않았지. 나는 그저 이렇게 기도했다네. ‘하나님, 이 사과나무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따뜻한 햇살이든지 세찬 비바람이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고 말일세.”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삶을 원하시나요. 참된 만족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 역시 선하신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신 주님과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	
제목	화평하게 하는자의 복 (마5:3-9)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본론	1. 화평하게 하는 자 (1) 세상에는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화락’이다(롬14:17/갈5:22). (2) ‘평강의 왕’(사9:6)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후5:18). (3)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12:18) (4) 화평은 희생이 따르고, 진리와 의와 청결을 통해 완성되어간다. (5)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9절/히12:14) 2. 교훈 (1)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한 자인가? (2) 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인가? (3) 나는 화평케 하는자로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결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경외함을 저버리면 평안도 멀어집니다	날짜 : 6월 8일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신명기 28:58-68		
	본망이 대조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인데, 축복이 단 14개 절만 기록된 데 반해 저주가 54절이나 기록되어 분량적으로 세 배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자 더 많이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본래 부패하고 타락하는 방향으로 더욱 더 잘 기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 된 본성 때문에 모세는 순종에 대한 축복보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더욱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세는 인간 본성의 죄악성을 경고하고 아울러 이 경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반적인 인간들의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언급되는 모든 저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저주를 실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저주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처하게 될 비참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심각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그 심각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각한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평안과 안식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찬양과 기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 453/통 506)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환 중인 아버지를 위해 심방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자녀들은 모두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아들이 제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시겠어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드린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점잖으셨던 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돌아누우신 채 “나에게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 하시며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서며 그분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은 그 마음 발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발(길가, 돌발, 가시떨기 발, 옥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 돌발, 가시떨기 발 모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만이 말씀이 심기면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땅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심겨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신명기 29:10~21	
묵상포인트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한 세대 혹은 한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백성다운 삶을 살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헛된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마음에 완악하고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기에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을 가로막습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심기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비결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 언약에 참여해 언약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10~15절)	
적용하기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의 편견이 방해가 된 적이 있나요? 거리낌 없이 언약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나의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제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하나님께서로 돌이킴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날짜 : 6월 12일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신명기 30:1-10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때에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생활을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의 포로 된 상황을 돌리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례란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참조, 창17:11).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새 언약하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할례를 예표하는 그림자이며, 동시에 할례의 본래적인 뜻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새 언약 하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닐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간직하라	날짜 : 6월 9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신명기 29:1-9		
	본장 1절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호렙 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 산에서 맺은 언약에 덧붙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 즉 대상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호렙 산 언약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구세대와의 언약이라면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이후 세대인 신세대와의 언약입니다. 물론 구세대의 언약 속에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 모압 평지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은 호렙 산 언약에 덧붙인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신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고 광야와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 등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당사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언약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참여자는 남녀 노소, 지위의 고하,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 민족의 종들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등한 언약 관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로서,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차별 없는 언약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세대에 주신 언약	날짜 : 6월 10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신명기 29:10-21		
	모세는 호렙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신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시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맺는 언약이 현재 이 언약에 참여하는 신세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는 언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대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무한히 확대된 언약의 특징과도 연관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믿음이라는 공약수를 통하여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계속성과 보편성을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을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언약을 깨뜨림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날짜 : 6월 11일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신명기 29:22-29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에게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란 신28장 후반부에서 묘사된 저주들을 가리킵니다(참조, 신28:15-68).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를 내팽개친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던져 버리심으로써 나라를 잃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고의 말씀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도록 방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묵상질문	1. 나에게 죄를 짓는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의 기도			